

신안산선 중간역사 추가설치 건의안 (정승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13
----------	------

발의년월일 : 2016. 10. 28.

발 의 자 : (정승현 외 20인)

☐ 주 문

- 新安山線 안산시 구간에 중간역사의 추가 설치를 건의함.

☐ 제안이유

- 新安山線은 안산(한양대) ~ 서울역까지 총 49.4km의 구간에 복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안산(한양대) ~ 여의도까지를 1단계 구간으로 우선 시행하여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적 이동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1단계 사업구간인 안산(한양대) ~ 여의도까지는 총 15개의 정차역이 있으나,新安山線 정차역 중 안산시 성포역과 시흥시 목감역은 역간 거리가 약 6.4km로 다른 역사들에 비해 역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
-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광역적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낙후된 안산동북부 지역에 중간역사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함.

☐ 결의안 : 덧붙임 1

☐ 관련 참고자료 :

- 해당없음

신안산선 중간역사 추가 설치 건의안

지난 9월30일 정부의 신안산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으로서 그동안 지난했던 신안산선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신안산선은 다아시는 바와 같이 1998년 수도권 광역철도 계획에 따라 2003년 구체적인 계획 실행단계에서 지자체간, 지역간갈등, 사업 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수 차례 지연됨으로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다행스럽게 2015년 8월 최종적으로 노선이 확정 발표되고 민간투자추진방식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 사업인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어렵게 시작한 본 사업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적 이동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더 이상 지연되는 일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목감역과 성포역 사이 중간 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건의한다.

신안산선 1단계 사업구간내에 추진할 정차역은 총 15개로 계획되어있으나 성포역과 목감역간 거리가 약 6.4km에 이른다. 비록 도심구간이로고는 하지만 신평역에서 도림사거리역 구간의 경우 0.8km에 비해 약 8배가 되는 거리로 오직 신안산선 개통을 기대하고 있는 안산 동북부 주민들에게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쉽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본다.

성포역과 목감역의 중간지대인 안산 동북부 지역 시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이 통과하는 이들 지역(양상, 양하동, 장상, 장하동, 부곡동, 수암동)은 8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잠재적 개발중대가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환경이 낙후된 시 외곽지역으로 해당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한, 이들 지역 중 수암지역은 안산시계와 시흥시계가 접한 지역이므로 수도권서남부지역의 광역적 이동편의 증진이 목적인 사업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휴일 평균 4,088여명의 등산객이 찾는 안산시의 최고봉인 경기도립공원 내 수암봉이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중간역사 건설은 안산시민 뿐만 아니라 수암봉을 찾는 인근

시흥, 군포, 안양, 광명시민들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그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월피동 개발제한구역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승인되었고 안산시 도시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승인되어 공공주택용지로 시가화예정용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개발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인 만큼 중간역사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철도의 정차역은 이용수요를 고려한 경제성과 편리성 증진 및 지역여론 등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은 물론,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인 만큼 개발계획 등 향후 발전가능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일일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6만 안산시민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구간 목감-성포역 사이 중간역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6년 10월 28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